



왜가리와 재갈매기의 먹이 다툼 4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에서 사냥한 물고기를 섭취하고 있는 왜가리를 재갈매기가 공격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자치행정 '4대 핵심과제' 선정

제주4·3 해결 여건 마련 등
 4대 핵심과제 3158억 투입

제주도는 '함께하는 자치, 신뢰받는 행정으로 도민행복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대개 핵심과제를 선정, 총 3158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선정된 4대 핵심과제는 ▷도민 중심의 제주특화형 자치행정 실현 ▷제주4·3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평생교육 기반강화와 미래인재 육성 등이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시장직

선제에 대한 국회 입법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제도를 개선하고, 읍면동장의 권한을 강화해 '제주특화형 자치제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제주4·3 분야에서는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101억2000만원) ▷제주형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첫 시범 운영(6억5400만원) ▷4·3유적지 30여개소 정비사업(15억4000만원) 등이 이뤄진다. '4·3복합센터' 건립은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라포커스 2020년 '위기 넘는 질적 도약 준비' <1> 지역경제 활성화

“‘선택과 집중’ 재도약 기틀 다듬어야”

도정목표 1순위·지역사회 현안 “경제 활성화”
 도, 민생안정 정책목표로 7920억원 집중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과제를 '위기 넘는 질적 도약 준비'로 정했다. 경제하강에 따른 민생의 여러 위기 상황들로 제주경제와 도민 삶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도약을 위한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 준비해 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도약은 커녕 위기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발전을 위한 올해 주요 현안을 수회에 걸쳐 점검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2020 제주특별자치도 시무식을 갖고 “올해 민생경제 활력화를 제1 목표로 하는 제주도정은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올해 도정의 제1 목표가 민생경제 활력화임을 강조했다. 한라일보와 제민일

보, JIBS 등 도내 신문방송 3사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올해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체 응답자의 2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민사회에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실정이다.

제주도는 2020년을 앞둔 지난 연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건설업을 비롯한 1차산업의 부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등 새해 제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대책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정책목표로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 총 56개 과제에 79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속가능한 제주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민관합동 '지역경제활성화 TF'를 활용,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TF는 경제활성화 과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TF에 참여한 소상공인, 기업인, 1차산업과 건설·관광산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현장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를 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2020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된 가운데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4.8%, 신속집행대상액

81.6%를 배정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부문에 집중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국내의 경기부진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제조업이 빈약하고 관광과 건설, 1차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 경제와 정치 등 외부적 요인에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도 제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3차산업인 관광산업이다. 또 1·2차산업의 회복에 무게를 둔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다듬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에선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사업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유치 사업과 관광지개발사업이 조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상윤기자

‘입성’ 이냐 ‘수성’ 이냐... 예선전 점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100... 공천 경쟁 본격화
 예비후보들 발품팔이속 현역 의정보고회로 가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필승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5일 제주도내 각 정당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지역 특성상 여야 유력 후보들간의 맞대결 양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및 현역 의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당 및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주자들은 얼굴알리기에 나서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한창이다. 여기에 현역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재입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의정보고회를 토대로 설 명절기간 여론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라일보 등 도내 신문방송 3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1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유무선 자동응답 및 전화면접, 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2.5%포인트)에서 현직 국회의원 재선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59.6%가 "다른 인물 당선 희망" (현직 재선 희망 28.5%, 모름/무응답 11.9%)이라고 답해 현역의원들의 입지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알려 표심을 좌우할 설 명절 여론을 자신들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선거구 강창일 의원은 오는 12일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불출마 등 거취표명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의 이목을 끌려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가 가장 많아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의 메시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는 14일 신성여중체육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오 의원은 제주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보다 후보 적합도에서 수월하게

앞선 상황이 아니어서 재선고지 등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의정보고회에서 재선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초부터 지역구를 누비면서 재선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경로당과 상가, 시장 투어를 진행하며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이에 맞서 여야 정당 후보들은 예비후보등록 이후 발품을 팔며 1차 관문인 '공천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무소속으로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역시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현역이 버티고 있는 선거구도 공천권 쟁탈전에서 자우스러울 수 없는 형편이다. 당내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선을 향한 공천 전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경자(庚子)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since 1981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산공부리분화구